

# 도시환경림의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

- 레크레이션기능을 중심으로 -

A Study of Monetary Evaluation for Urban Environmental Forest

- With a Special Reference to Recreational Function -

윤여창, 김연수\*

(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)

## 1. 연구의 목적

생활환경의 악화가 심각한 서울시를 대상으로 도시의 물리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환경림의 공익적 기능을 가치평가하고자 한다.

## 2. 연구방법

### (1) 연구대상지

자원특성과 이용행태가 다른 관악산과 양재동 시민의 숲 두 곳을 선정하였다. 시간·계절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여름(1992년 8월 23일)과 가을(1992년 11월 1일)의 두 시기로 나누어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다. 총 관악산 138매 시민의 숲 147매 조사하였다.

### (2) 연구방법

현장조사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행태(방문 목적, 동행 형태와 동행자 수, 방문횟수, 경비 등)와 인적 특성, 가상적으로 제시된 금액에 대한 이용자의 지불 의사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이선임의 가치법으로 가치평가하였다. Logit Model의 구성을 위하여 LIMDE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. 그외의 자료분석에는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.

#### \* 간접적 가치추정방법(임의가치법-Contingent Valuation Method)

Contingent 혹은 Hypothetical Valuation Method(임의가치법)은 직접 응답자에게 최대 지불의사금액(Maximum amount of willingness to pay)을 질문함으로써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의 상대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. 이러한 의미에서 이 방법을 "direct method"라고 부르기도 한다.

이 방법의 이론적 배경을 수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$$\text{식 1} \quad EV = X(P', Q, U'') - X(P', Q, U')$$

└ P=가격, Q=환경의 질, U=효용수준  
└ EV=동등변이(Equivalent Variation)

$$X(P', Q, U') = X(P'', Q, U'')$$

$$\text{식 2} \quad EV = X(P', Q, U'') - X(P'', Q, U'')$$

$$\text{식 3} \quad EV = \int X(P, Q, U) dp$$

이전의 가격수준( $P'$ )에서 효용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등변이(EV)는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, 식2에서 효용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로 전환시켜 일반시장재의 수요함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. 결국 X함수의 적분은 일반시장재의 소비자잉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.

본 조사에서는 주어진 가격에 대하여 '예' 혹은 '아니오'의 두 가지 대답만을 가능하게하는 이선임의 가치법을 사용하였다. 입장료의 상승 혹은 시설에 대한 반응은 금액이 높게주어질수록 재방문의사가 없다고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. 이것은 확률분포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며, 이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.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.

$$P_i = F(Z_i) = \frac{1}{1 + e^{-Z_i}} \quad (Z_i = a + b X_1 + c X_2)$$

└ P<sub>i</sub> = 계시된 가격상승 상황하에 재방문 확률

└ X<sub>1</sub> = 계시된 입장료의 상승(100원 ~ 10만원, 18단계)

└ X<sub>2</sub> = 영향하는 변수(ex 가구당 월소득, 총 여행비용)

위의 확률함수는 다음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.

$$L = \ln \frac{P_i}{1 - P_i} = a + b X_1 + c X_2$$

$$E(WTP) = \int_0^{\infty} \frac{1}{1 + e^{-(a' + bX_1)}} d X_1$$

: E(WTP) = 기대 지불의사액

a' = a + c  $\bar{X}_2$  ( $X_2$ 는 평균 값으로 고정시겠다)

$$= \left[ \frac{1}{b} \ln(1 + e^{(a' + bX_1)}) \right]_0^{\infty}$$

b ≤ 0 일때,

$$= -\frac{\ln(1 + e^{a'})}{b}$$

다음의 결과는 위의 변수를 가지고 각 조사지역별 함수식을 구성하여 본 것이다.

### 3. 결과 및 고찰

#### 가) 관악산

$$\begin{aligned} a &= 0.0972737 \quad b = -0.0000246409(-2.462) \quad c = 0.387347E-07(0.138) \\ a' &= 0.0972737 + 0.387347E-07 * 1297300(\text{mean of } X_2) = 0.15 \end{aligned}$$

$$E(WTP) = -\frac{\ln(1 + e^{a'})}{b} = 31,248.86 \text{ 원}$$

$$\begin{aligned} \text{Significance level} &= 0.00 \quad R^2 = 91.11 \quad (\text{()안은 T값}) \\ X_2 &= \text{가구당 월평균 소득} \end{aligned}$$

#### 나) 시민의 숲

$$\begin{aligned} a &= 0.934846 \quad b = -0.000127122(-3.021) \quad c = -0.505938E-06(-1.700) \\ a' &= 0.934846 - 0.505938E-06 * 1550400(\text{mean of } X_2) = 0.15 \end{aligned}$$

$$E(WTP) = -\frac{\ln(1 + e^{a'})}{b} = 6,064.70 \text{ 원}$$

$$\begin{aligned} \text{Significance level} &= 0.00 \quad R^2 = 88.93 \quad (\text{()안은 T값}) \\ X_2 &= \text{가구당 월평균 소득} \end{aligned}$$

관악산보다 시민의 숲의 가치가 적은 것은 자원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지불의사에 영향하는 변수로서 가구당 소득과 여행 비용을 설정한 것은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한 때문이었으나, 설명력이 낮았다.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지불의사에 영향하는 변수들을 파악하고, 객관적으로 지표화하는 작업을 통하여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한다.